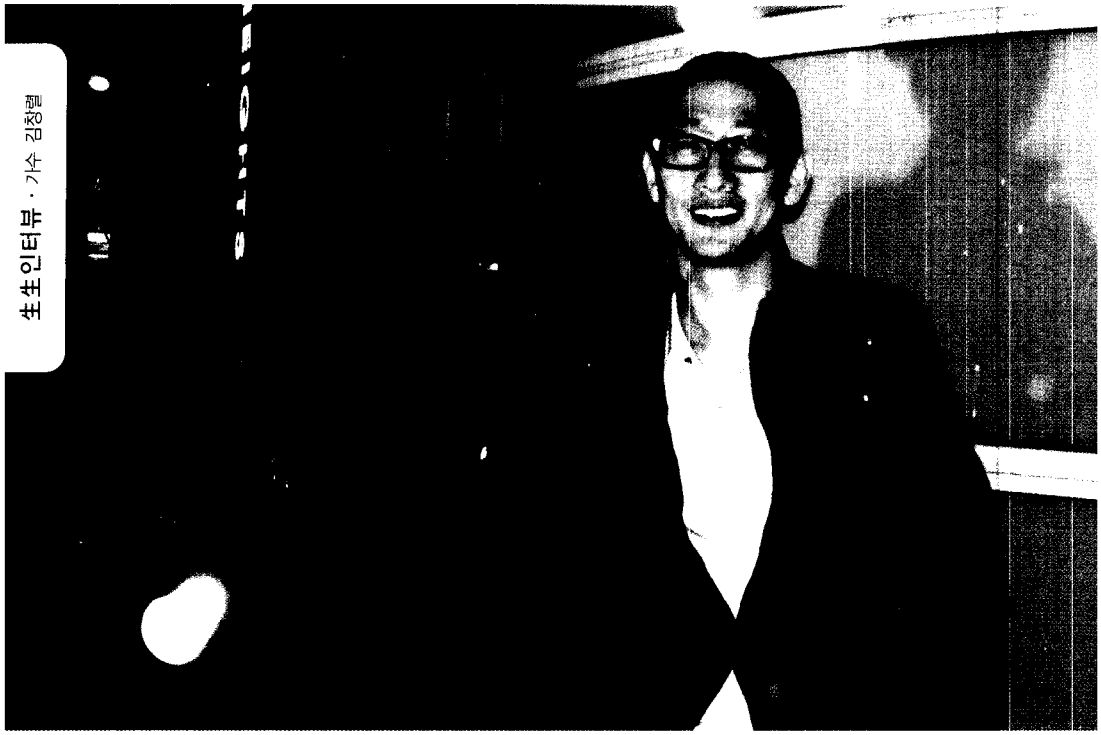


2008년 결핵홍보대사로 임명된 가수 김창렬

"결핵 바로 알리는 데 도움되고 싶어요"

때아닌 눈보라가 휘날리던 2월 어느날, 목동 SBS 방송국 로비에 막 라디오 생방송을 마친 가수 김창렬이 등장했다. 올백으로 넘긴 헤어스타일이 파격적으로 느껴지는 가운데 가창력 만큼이나 시원시원한 목소리의 그가 예의바른 인사를 건네 왔다. 때는 저녁, 근처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편안한 분위기에서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글_박연숙(본지기자)

당사자는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겠지만, 결핵 홍보대사로 공식 임명되기 전인 2006년도에 그는 이미 결핵홍보대사였다. 학생들에게 결핵에 대해 알리는 DVD를 제작하던 2006년 당시 방송국 로비에서 '결핵에 대한 짧은 인터뷰'에 응한 그의 모습이 담긴 DVD는 전국 학교에 배포되어 많은 학생들의 관심을 끌어냈던 것.

결핵 홍보대사 제의를 받고…

"처음엔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저로 인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한 번 해보자 싶어 매니저에게 하겠다고 했죠."

이미 방송에서 결핵에 걸린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그는 당시 결핵에 대해 잘 알지 못했는데, 만약 결핵이 어떤 병인지 미리 알았더라면 훨씬 더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친한 동료들로부터 "못 먹어서 결핵에 걸렸다"며 농담 섞인 놀림을 많이 받았다는데, 이때 사람들이 결핵에 대해 너무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고.

결핵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걸리는 건가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NO'이다. 최근의 결핵 발생 양상을 보면 빈부에 관계없이, 나이에 관계없이 발생하고 있다. 오히려 청장년층이나 학생들에게서 결핵이 많이 나타나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결핵이 면역과도 관계가 있는 만큼 영양상태가 좋지 않거나 건강이 좋지 않으면 걸리기 쉽고 잘 낫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제가 결핵에 걸렸던 때가 97년도였어요. DJ DOC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던 때죠. 그때 쿨의 이재훈 씨 병문안을 갔었는데, 병상에 누워있던 이재훈 씨가 '나보다 형이 더 아파 보인다'고 해 처음 검사를 받게 됐어요. 그랬더니 결핵이래요."

결핵에 걸린 당시 그는 180㎝가 넘는 키에 56㎏까지 몸무게가 줄었다고. 당시 결핵이 그렇게 힘든 병인 줄 몰랐다는 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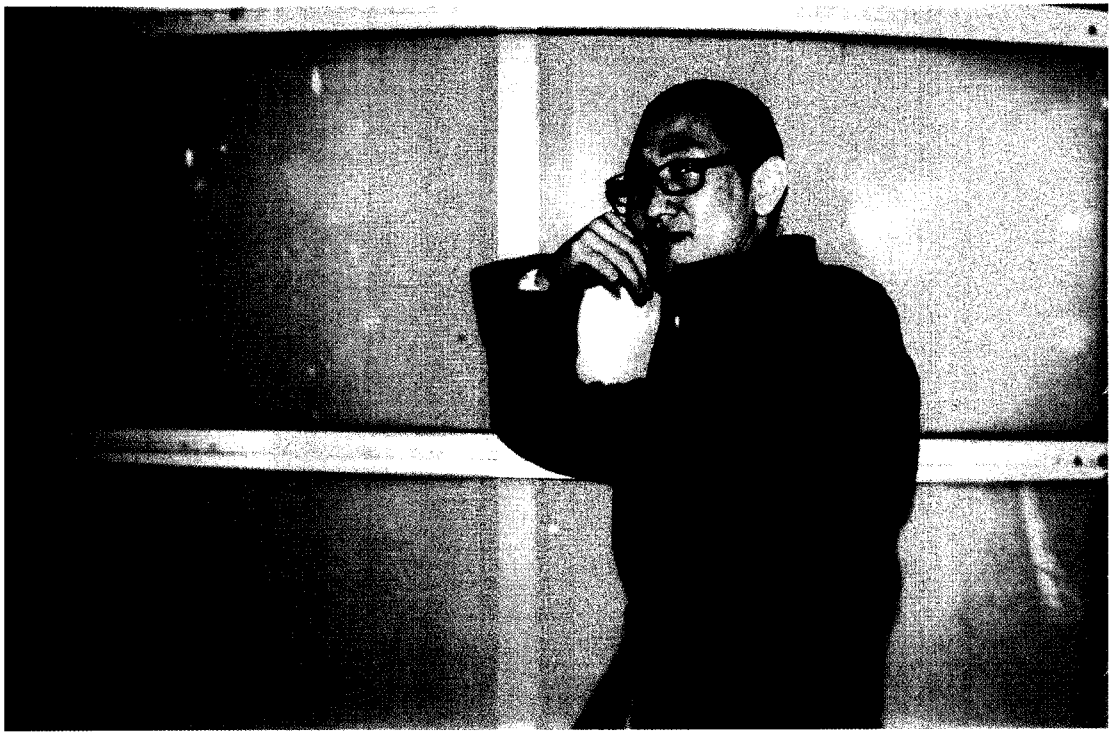
"약을 먹는 동안 너무 괴로웠어요. 약도 한 주먹이고, 소변을 보면 색도 빨갛게 되고. 사실 몸이 아픈 것보다는 그 어마어마한 양의 약을 보고 지레 겁을 먹어 더 아픈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연예인이라는 직업 특성상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운데, 간혹 밥을 거르거나 때를 놓치면 약을 먹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 담당의사로부터 '규칙적인 약 복용이 중요하다'는 당부를 들었던지라 최대한 열심히 먹으려고 했고 6개월 치료 끝에 현재는 건강한 상태라고 한다.

이젠 생활이 된 건강관리

"어른들이 결핵은 잘 먹어야 낫는다고들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머니께서 고기 많이 먹어야 한다며 소고기를 엄청 먹이셨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개고기더라구요. 하하."

개고기를 전혀 입에 대지 않던 그가 개고기를 처음 먹은 사연치곤 꽤 절절하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병이 나았으니, 속는 셈치고 한 번 믿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현재 김창렬은 sbs라디오 올드스쿨의 DJ로 맹활약 중이며, 그 밖에도 진행자로 나서는 등 가수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콘서트 등의 무대에서는 DJ DOC로 여전히 건재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일들을 소화하기 위해선 체력이 중요할 것 같아 건강관리 비법에 대해 물었다.

"체력관리요? 비정기적이지만 야구나 축구를 즐겨요. 라디오 방송 할 때도 몸을 가만히 두지 않고 열심히 춤을 춰요. 따로 시간 내서 하는 운동이 아니라 제 생활이 운동이자 건강관리에요."

한때 담배와 술을 매우 즐겼다는 그는 꼭 결핵 때문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둘 중의 하나를 끊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그래서 담배를 끊게 되었고, 술도 과음하지 않는 정도에서 마시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김창렬은 DJ DOC의 팬에게 반가운 소식 하나를 귀띔해주었다. 올 해 안에는 새 앨범을 낼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올 해는 꼭 내야죠. DJ DOC가 활동을 안하는 건 아닌데, 방송에서 노래를 안부르니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연내에 꼭 좋은 음악으로 찾아뵐게요."

사회 전반적으로 가라앉은 분위기를 DJ DOC가 신나는 음악으로 띄워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에필로그

누구에게나 '이미지'라는 것이 있다. 평범한 사람들에게 있어 이미지는 그 사람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하지만, 스타에게 있어 이미지는 그 사람의 전부가 되기도 한다. 대중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변덕스러워 기존의 이미지가 깨어지는 순간 안티가 팬으로, 팬이 안티로 급선회하곤 한다.

그런 '이미지'의 허상을 꿰뚫은 듯, 시종일관 솔직하고 거침없는 면모를 보여준 김창렬. 스타로서 감추고 싶을 수도 있는 발언들조차 그의 입을 통해 나오면 오히려 솔직함으로 받아들여진다.

그의 솔직함이 처음부터 그런 박수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 '연예면보다 사회면에 더 자주 등장하는 연예인'이라 스스로를 칭하며, 자신에 대한 편견조차 개그의 소재로 이용할 줄 아는 여유, 현재를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어쩌면 연예인으로서 감추고 싶을 수도 있는 병력을 당당히 공개하며 그만의 솔직함으로 상대방을 무장해제 시키는 매력, 결핵이라는 병의 어려움을 잘 아는, 그래서 더더욱 진심으로 결핵을 알리는 데 열심일 결핵 홍보대사의 등장이 반가운 이유다. ✝

2008. 2.
KTDOC 김창렬